한마음선원 자원봉사단 첫 연합활동 현장

현장속으로

“나와 남이 둘 아닐때 깨끗하고 행복한 세상 와요”

8월의 마지막 날 오후 1시. 연두색 조끼를 입은 불자들이 안양시 석수동 삼막천에 모였다. 한마음선원 자원봉사단(단장 김선희, 이하 자원봉사단)이 발족 후 처음으로 갖는 연합 봉사활동이다.

복지관과 군부대 등 분야별로 활동해오던 자원봉사팀을 하나로 통합해 발족된 자원봉사단은 6월 27일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을 모신 가운데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7월 11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에서 혜원 스님은 “가장 큰 봉사활동은 내 집부터 챙기는 것”이라며 자신과 주변을 둘 아니게 여길 때 봉사활동도 즐겁고 보람 있는 수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1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자원봉사단은 6개 팀으로 나눠 안양지역 노인복지관 등에서 팀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마음선원에서 초하루 법회를 마치고 집게와 장화 등 청소도구로 ‘무장’한 자원봉사단은 지도를 맡은 혜당 스님과 삼막천 일대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이날 자원봉사단의 첫 연합활동에 학생회 봉사단원들도 동참해 힘을 보탰다.

따가운 가을 햇살도 마다 않고 열심히 개천가 수풀과 돌 틈새를 뒤지는 봉사단의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는 조금씩 무게를 더해 갔다.

“언뜻 볼 땐 깨끗해 보이더니 막상 안쪽에 들어와 보니 오물이 이렇게 많네요.” 누군가의 한 마디에 봉사단원들은 “보이는 곳의 깨끗함도 보이지 않는 곳의 더러움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챙겨지지 않는 도리를 다시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회원들 6개 팀으로 나눠 복지관 등서 ‘구슬땀’

안양시와 유기적인 관계로 활동 영역 확장

쓰레기 봉지가 찰수록 마음은 가벼워지는 듯 봉사단원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3시간의 청소 활동으로 삼막천이 한결 깨끗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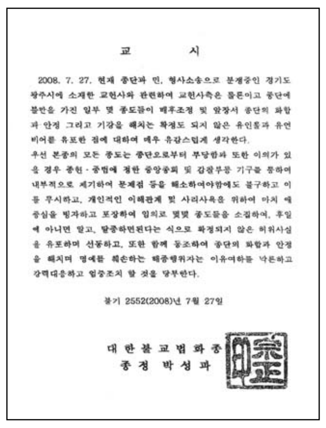
자원봉사단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 갈 방침이다. 개별적인 봉사활동의 틀을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하게 된 봉사단은 지역에서의 활동 위상을 강화하며 불자로서 ‘공용 공체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임연태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한마음선원 자원봉사단의 선서

1. 우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2.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비심을 키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한마음 도리를 익히겠습니다.
3. 우리는 수행과 실천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4.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로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과 양보하는 정신이 일상생활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면 하단광고에서 이어집니다



교 시

2008. 7. 27. 현재 종단과 민, 형사소송으로 분쟁중인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교헌사와 관련하여 교헌사측은 물론이고 종단에 불만을 가진 일부 몇 종도들이 배후조정 및 앞장서 종단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기강을 해치는 확정도 되지 않은 유인물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본종의 모든 종도는 종단으로부터 부당함과 또한 이의가 있을 경우 종헌·종법에 정한 중앙종회 및 감찰부등 기구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제기하여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 및 사리사욕을 위하여 마치 애종심을 빙자하고 포장하여 임의로 몇몇 종도들을 소집하여, 후일에 아니면 말고, 탈종하면된다는 식으로 확정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동하고, 또한 함께 동조하여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며 명예를 훼손하는 해종행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력대응하고 엄중조치 할 것을 당부한다.

불기 2552(2008)년 7월 27일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박성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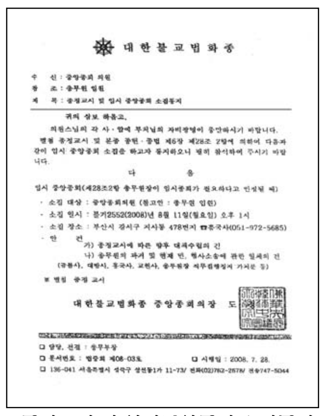
교 시

2008. 7. 27 현재 종단과 민, 형사소송으로 분쟁중인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교헌사와 관련하여 교헌사측은 물론이고 종단에 불만을 가진 일부 몇 종도들이 배후조정 및 앞장 서 종단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기강을 해치는 확정도 되지 않은 유인물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본종의 모든 종도는 종단으로부터 부당함과 또한 이의가 있을 경우 종헌 · 종법에 정한 중앙종회 및 감찰부 등 기구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제기하여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야함에도 불고하고 이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 및 사리사욕을 위하여 마치 애종심을 빙자하고 포장하여 임의로 몇몇 종도들을 소집하여, 후일에 아니면 말고, 탈종하면 된다는 식으로 확정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동하고, 또한 함께 동조하여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며 명예를 훼손하는 해종 행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력 대응하고 엄중조치 할 것을 당부한다.

불기 2552(2008)년 7월 27일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박성파



대한불교법화종

수 신 : 중앙종회 의원
참 조 : 총무원 임원
제 목 : 종정교시 및 임시 중앙종회 소집통지

귀의 삼보 하옵고,
의원스님의 각 사·암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종정교시 및 본종 종헌·종법 제6장 제28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 중앙종회 소집을 하고자 통지하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임시 중앙종회(제28조2항 총무원장이 임시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소집 대상 : 중앙종회의원 (참고인 : 총무원 임원)
- 소집 일시 : 불기2552(2008)년 8월 11일(월요일) 오후 1시
- 소집 장소 :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478번지 ☎흥국사(051-972-5685)
- 안 건
  가) 종정교시에 따른 향후 대책수립의 건
  나) 총무원의 과거 및 현재 민, 형사소송에 관한 일체의 건 (광룡사, 대방사, 흥국사, 교헌사,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 별첨 종정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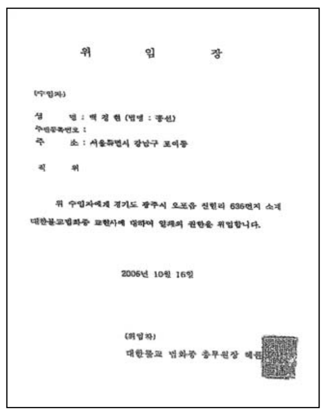
대한불교법화종 중앙종회의장 도

□ 담당, 전결 : 총무부장
□ 문서번호 : 법중회 제08-03호 □ 시행일 : 2008. 7. 28.
□ 136-0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선동1가 11-73/ 전화(02)762-2678/ 전송747-5044

▷종정교시 및 임시중앙종회 소집통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총무부장(해암)이 교헌사(혜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무고 및 사기 고소 사건이 2008년 8월 25일 자로 모두 무혐의 처리됨.



위 임 장

(수임자)
성 명 : 백 정 현 (법명 : 홍선)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직 위

위 수임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36번지 소재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위임자)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任命狀

姓 名 : 백 정 현 법 명 : 홍 선
職 位 : 주
所 屬 :
上記와 如히 任命함
西紀 2006年 11月 21日
大韓佛敎法華宗
總務院長 金 慧

▷교헌사 주지 임명장

위 임 장

(수임자)

성명 : 백정현 (법명 : 홍선)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

직위 : 대한불교법화종 교무국장

위 수임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36번지 소재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위임자)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사)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의원 일동 [전화 : 053)643-4771 / 팩스 053)643-4772 / 후원계좌 농협 150084-51-064421 예금주:김경미(정화위원회)]